

黃帝內經의 經氣 往來에 대한 고찰

백유상¹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A study on comings and goings of the meridian gi in 『Huangdineijing』

You-Sang Baik¹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Meridian Gi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specially one of the movement properties like that comings and goings of Gi.

Methods : Through searching concepts and properties of Meridian Gi in several chapters of 『Huangdineijing(黃帝內經)』, many phrases concerned with that properties could be explained and reconstructed into new motional shape of Meridian Gi.

Results : The basic characters of comings and goings of Meridian Gi or genuine Gi originate from food essence, and that are like a kind of waves. The most important moments of acupuncture treatment is such time of it's short passing the acupoints, carrying out tonifying and purging methods by controlling the spirit.

Conclusions : The Meridian Gi consists of anti-pathogenic Gi so called genuine Gi and pathogenic Gi. Medical doctor must correctly knows the flow of Meridian Gi to operate tonifying and purging method of acupuncture treatments in order to get the desired results. Also maintaining very sensitive state in diagnostic process, the most important key points is to control the spirit and adjust mental activities of both doctors and patients. The motional properties of Meridian Gi are actually concerned with the arrival of Gi and reinforcement-reduction along and against Meridian Gi.

Key words : Meridian Gi, genuine Gi, getting Gi, the arrival of Gi, tonifying and purging method

1. 서 론

經氣는 經絡을 흐르는 氣로서 『黃帝內經』

속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 經絡을 순행하는 氣血을 통칭하여 經氣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氣의 動的 현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¹⁾. 그러나 邪氣도 氣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經絡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으므로 넓

· 교신저자: 백유상,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Tel. 02-961-0326, E-mail:
baikys@khu.ac.kr

· 투고 : 2008/03/03 심사 : 2008/03/07 채택 : 2008/03/24

은 의미에서 보면 經氣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 하에서는 邪氣도 經氣의 일부분이다. 또한 經氣의 운동 방향에 있어서는 經絡의 陰陽 속성에 의하여 陽의 經氣와 陰의 經氣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經氣의 운동 방향은 크게 순환적인 것과 일방적인 것으로 나누어 지기도 한다²⁾. 우선 본 논문에서는 經絡의 순행 방향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經絡을 지나는 經氣의 전체적인 운동 특성인 經氣의 往來에 대하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經氣가 往來하는 것과 그 양태에 대하여 『黃帝內經』 중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經氣의 운동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經氣의 본질, 진단 및 刺鍼 방법 등이 관련되어 있는데 氣至, 得氣, 補瀉, 治神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補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內經』에 나오는 經氣의 往來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되는 經氣의 개념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연구방법

『黃帝內經』에 나오는 여러 조문들 중에서 經氣의 개념, 經氣가 가지는 운동적 특성 및 그와 관련된 刺鍼法과 補瀉法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각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내경 주석서인 『黃帝內經太素』와 『類經』을 참고하였고, 관련 논문들의 내용을 주석으로 첨가하였다.

2. 經氣의 본질

우선 『內經』에서 말하는 經氣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黃帝內經』에서 經氣는 표면적으로 眞氣라고 하였다. 『素問·離合眞邪論篇』에서 “眞氣者, 經氣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眞氣는 특별한 성격의 기라기보다는 우리 몸을 자양하는 經絡의 기능^{①)}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正氣의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內經』에 나오는 眞氣에 대한 다른 표현을 살펴보면 『靈樞·刺節眞邪』에서 하늘로부터 받아 穀氣와 함께 온몸을 채워주는 것이라 하였다^{②)}. 여기에 대해 張介賓은 『類經

① 『靈樞·經脈』에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먼저 精을 만드니 精이 만들어지면 골수가 생기며 뼈가 근간을 이루고 맥이 자양을 하며 근육이 강함을 만들고 살이 담장을 이루며 피부가 치밀해지면서 터럭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水穀이 胃로 들어오면 脈道가 통하여 血氣가 곧 행하게 됩니다.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라 하여 經脈이 氣血을 순환시켜 우리 몸을 자양함을 설명하였다.

② 『靈樞·刺節眞邪』에서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듣기로 기에는 眞氣, 正氣, 邪氣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眞氣라고 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眞氣란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穀氣와 아울러 몸을 채웁니다. 정기는 正風으로서 한 방향으로부터 오니 實風도 아니고 虛風도 아닙니다. 邪氣는 虛風이 사람을 해쳐 상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침입하는 것이 깊어서 저절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黃帝曰, 余聞氣者, 有眞氣, 有正氣, 有邪氣, 何謂眞氣. 岐伯曰,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并而充身也. 正氣者, 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又非虛風也. 邪氣者, 虛風之賊傷人也, 其中人也深, 不能自去.)”라고 하였다.

· 疾病類· 邪變無窮』에서 “眞氣는 곧 元氣이니 하늘에 있는 것은 코로 들어와 숨구멍이 담당하고 水穀에 있는 것은 입으로 들어와 목구멍이 담당한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기 전의 처음에 받은 것을 先天의 氣라 하고 이미 태어난 후에 이루어진 것을 後天의 氣라 한다. (眞氣即元氣也, 氣在天者 受於鼻而喉主之, 在水穀者, 入於口而咽主之. 然鍾於未生之初者, 曰先天之氣, 成於已生之後者, 曰後天之氣.)”라 하여 眞氣를 단순히 코로 들어오는 天氣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元氣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⁴⁾.

經氣는 眞氣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經絡 또는 經隧라는 틀 속을 往來하는 氣라 할 수 있으므로 주로 營氣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³⁾⁵⁾. 營氣는 또한 經絡을 순행하는 氣血과 동일시되기도 한다⁴⁾.

이러한 眞氣, 營氣, 氣血 등의 근원은 水

穀之氣, 즉 穀氣이다. 『素問· 痺論』에서 “榮者, 水穀之精氣也... 衛者, 水穀之悍氣也.”라 하여 營衛의 氣가 모두 水穀에서 근원한다고 하였다⁵⁾. 이 穀氣는 水穀之海인 胃에서부터 나와 經隧를 따라 온몸으로 퍼진다⁶⁾. 여기서 經隧란 보통 脈의 개념보다는 기가 흐르는 통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隧字는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⁶⁾ 經脈보다 더有形인 형체 구조에 가깝다. 『素問· 調經論』에서는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음과 양이 서로 아우르려 하여 혈기가 각각 병합되어 병의 형태가 만들어질 경우에 어떻게 刺鍼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이것을 刺鍼할 때는 經隧를 취하여 營分에서는 瀉血하고 衛分에서는 邪氣를 내보내는데 형체를 볼진댄 四時 기운의 多少와 高下에 따라야 합니다. (帝曰, 陰與陽并, 血氣以并, 病形以成, 刺之奈何. 岐伯曰, 刺此者, 取之經隧, 取血於營,

③ 『靈樞· 營衛生會』에서 “營氣는 맥 중에 있고 衛氣는 맥 밖에 있다. (營在脈中, 衛在脈外.)”, “中焦는 또한 胃 중에 붙어 있다가 上焦의 뒤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받아들인 기로 조박을 짜내고 진액을 쥘서 정미로운 기로 만들고 위로 肺脈에 흘러들어가 다시 변화하여 血이 되니 살아가는 몸을 받는데 이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유독 經隧를 운행하는 것을 營氣라 이른다.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라 하여 營氣가 주로 脈中과 經隧를 통해 운행한다고 하였다.

④ 『靈樞· 玉版』에서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가 水穀이며 水穀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胃이니 胃는 水穀과 氣血의 바다이다... 胃에서 氣血을 퍼뜨리는 것이 經隧이다. (人之所受氣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也. 胃者, 水穀氣血之海也... 胃之所出氣血者, 經隧也.)”라 하여 經隧를 운행하는 營氣와 胃에서 나온 氣血이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⑤ 『素問· 痺論篇』에서 “營氣는 수곡의 정미로운 기이다. 오장과 조화를 이루며 육부로 흩어져 퍼지고 나서야 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경맥을 따라 오르고 내리며 오장육부를 꿰뚫는다. 衛氣는 수곡의 사나운 기이다. 그 기운이 빠르고 미끄러워서 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부와 分肉의 사이를 순행하며 肓膜에서 덥혀졌다가 가슴과 배로 흩어진다. (榮者, 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藏, 灑陳於六府,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 貫五藏絡六府也. 衛者, 水穀之悍氣也. 其氣慄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肓膜, 散於胸腹.)”라 하였다.

⑥ 『靈樞· 玉版』에서 “胃에서 氣血을 퍼뜨리는 것이 經隧이다. 經隧는 오장육부의 大絡으로서 맞이하여 기를 탈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胃之所出氣血者, 經隧也. 經隧者, 五藏六府之大絡也, 迎而奪之而已矣.)”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經隧는 五臟六腑에서 갈라져 나온 큰 絡脈으로 일반적인 經脈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며 주로 瀉하는 것으로 보았다.

取氣於衛, 用形哉, 因四時多少高下.)”라 하여 營氣, 衛氣에 있는 邪氣를 없애기 위하여 氣가 다니는 통로인 經隧를 먼저 刺鍼하도록 하였다.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이것을 세 가지 다른 刺法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⑦) 순행 노선이 서로 다르다기보다 營分을 刺鍼하여 瀉血하거나 衛分을 刺鍼하여 體表의 陽邪를 없애는 방법 이외에 氣를 조절하기 위하여 補瀉를 행할 때 주로 經隧를 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리 말한 것으로 보인다^⑧. 그밖에 上焦의 宗氣^⑨와 下焦의 原

氣^⑩ 또는 元氣, 衛氣^⑪ 등이 일부 經氣에 관련되어 있다⁵⁾.

위에서 經氣를 眞氣라 하여 단일한 氣로 설명하였으나 『內經』에서는 經氣를 다시 여러 가지 氣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邪氣와 精氣로 나누어 보면 『靈樞·終始』에서 “邪氣來也緊而疾, 穀氣來也徐而和.”라 하였는데, 이것은 邪氣가 오는 것은 팽팽하면서도 빠르지만 穀氣가 오는 것은 서서히 오고 조화롭다고 하여 서로 다른 형태로 往來함을 보여준다. 또한 『靈樞·

⑦ 楊上善은 『太素·卷二十四·虛實所生』에서 “이미 만들어진 병을 자침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大經을 취하되 별도로 갈라진 길로 隧道이며 또 별도로 갈라진 길로 음양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맥 중의 營血에 자침하며 셋째는 맥 외의 衛氣에 자침한다. (刺已成病法有三別, 一則取之大經, 別走之道, 隧道也. 別走之道 通陰陽道也. 二則刺於脈中營血, 三則刺於脈外衛氣.)”라 하여 經隧를 영위의 통로와 따로 보고 있다.

⑧ 『素問·調經論』에서 “기가 유여하면 經隧를 瀉하되 經을 손상시키지 말며 혈을 빼내지 말며 기를 빠져나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기가 부족하면 經隧를 補하되 기를 빼내지 말아야 한다. (氣有餘則瀉其經隧, 無傷其經, 無出其血, 無泄其氣. 不足則補其經隧, 無出其氣.)”라 하여 주로 氣가 往來하는 經隧를 통하여 補瀉의 調氣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⑨ 『靈樞·邪客』에서 “오곡이 胃로 들어가면 糟粕, 津液, 宗氣의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므로 宗氣는 흉중에 쌓였다가 喉嚨으로 나와서 心脈을 뚫고 가서 호흡을 일으킨다. 營氣는 진액으로 분비되어 脈으로 흘러 들어가 변화하여 血이 된 것으로 사지를 자양하고 안으로 오장육부로 흘러드는데 시간의 수에 맞추어 간다. 衛氣는 사납고 빨라서 먼저 사지 분육의 사이를 행하여 쉬지 않는데 낮에는 양분을, 밤에는 음분을 행하되 항상 足少陰 부분에서 시작하여 오장육부를 행한다.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臟六腑.)”라 하여 水穀之氣로부터 宗氣, 營氣, 衛氣로 갈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宗氣는 자체로 穀氣에서 발원하기도 하며 또한 上焦에서 脈氣를 추동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⑩ 『難經·六十六難』에서 “삼초의 기가 행하는 兪가 原이 되는 것은 어찌서입니까? 그렇다. 배꼽 아래 腎 사이 뛰는 기가 사람의 생명이며 십이경맥의 근본이므로 原이라 한다. 삼초는 原氣의 특별한 사령으로 주로 상중하의 기를 통행시켜 오장육부를 차례로 지나게 한다. (三焦所行之兪爲原者, 何也. 然,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라 하여 三焦가 臍下腎間動氣의 原으로부터 原氣를 받아 五臟六腑로 기를 보낸다고 하였으며 『難經·八難』에서는 “모든 십이경맥이 다 생기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니, 이른바 생기의 근원이라는 것은 십이경맥의 근본과 腎 사이의 뛰는 기를 말하니 일명 邪氣로부터 지켜내는 神이라 한다. (諸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라 하여 바로 十二經脈이 腎間動氣인 三焦之原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⑪ 衛氣는 脈外로 흐르지만 『靈樞·衛氣行』에서 陽分을 순행할 때 기존의 經脈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 經氣의 구성 요소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 『靈樞·動輸』에서 “營衛의 순행은 상하로 서로 관통하여 고리처럼 끝이 없다.(營衛之行也, 上下相貫, 如環之無端.)”이라 하였고 『靈樞·癰疽』에서도 “血脈 營衛가 일주하여 흘러 쉬지 않는다.(夫血脈營衛, 周流不休.)”라 하여 營氣의 순환성을 강조하였다.

九鍼十二原』에서는 “夫氣之在脈也，邪氣在上，濁氣在中，清氣在下。故鍼陷脈則邪氣出，鍼中脈則濁氣出，鍼太深則邪氣反沈病益。”이라 하였다. 여기서 濁氣는 바로 營氣를 말하는데¹²⁾ 濁氣를 배출하는 경우는 營氣가 멎쳐서 울체된 경우 瀉法을 써서 빼내는 것이다. 가장 깊이 있는 清氣가 바로 經氣 중에서 가장 중요한 眞氣라 할 수 있다. 깊게 자침하였을 경우 邪氣가 반대로 깊이 가라앉아 병이 심해진다는 것은 가장 깊숙이 있는 맑은 精氣를 손상시켜 邪氣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傷寒論』에서 汗吐下 三法을 지나치게 써서 精氣가 손상되어 邪氣를 陰分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經氣는 단순한 正氣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邪氣 또는 清氣, 濁氣 등의 다양한 氣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經氣의 조절을 통하여 正氣와 邪氣를 모두 함께 補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밖에 『內經』에서 經氣는 진단 상 絡氣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素問·通評虛實論』에서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絡氣가 부족하고 經氣가 유여한 것은 어떠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絡氣가 부족하고 經氣가 유여한 것은 寸口는 熱象

이 있고 尺膚는 차가운 것입니다. (帝曰，絡氣不足，經氣有餘，如何。岐伯曰，絡氣不足，經氣有餘者，脈口熱而尺寒也.)”라 한 것이 그것이다.

3. 經氣의 往來

『黃帝內經』에서는 經氣가 요동하는 것을 파도에 비유하고 있다. 우선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 “夫邪之入於脈也，寒則血凝泣，暑則氣淖澤，虛邪因而入客，亦如經水之得風也，經之動脈，其至也亦時隴起，其行於脈中循循然，其至寸口中手也，時大時小，大則邪至，小則平，其行無常處，在陰與陽，不可爲度，從而察之，三部九候，卒然逢之，早遏其路.”라 하였다. 經脈의 운동을 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天人相應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靈樞·經水』를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외부로부터 風邪가 들어왔을 때 파도가 작은 언덕처럼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은 風邪가 주로 動하는 성질이 강하여 經氣를 요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맥 중을 지날 때에는 순하다가 寸口 부위에 이르러서 때때로 커지는데 이 파동이 클수록 邪氣가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병리적 현상이며 이러한 大小의 차

12) 『素問·經脈別論』에서 “곡기가 胃로 들어오면 탁기가 心으로 모이고 精이 맥으로 흘러넘친다. 맥기가 경락을 흐르다가 폐로 모이면 폐는 모든 맥을 조절하여 다시 皮毛로 精을 보내고 皮毛의 맥은 精을 합하여 府로 기를 보낸다. 府에 쌓인 精과 神明이 四藏에 머무르면 기가 안정되어 평형의 상태로 돌아가 氣口의 寸部로 드러나니 이로써 사생을 결단할 수 있다. (食氣入胃，濁氣歸心，淫精於脈。脈氣流經，經氣歸於肺，肺朝百脈，輸精於皮毛。毛脈合精，行氣於府。府精神明，留於四藏，氣歸於權衡。權衡以平，氣口成寸，以決死生.)”이라 하여 水穀之氣가 胃에 모인 후 濁氣의 형태로 心으로 가서 다시 脈으로 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濁氣는 營氣에 가깝다. 清氣가 아닌 濁氣라고 표현한 이유는 氣보다 血이 重濁하기 때문이다.

이를 三部九候 脈法을 사용하여 진단, 치료 하도록 하고 있다. 『靈樞·經脈』의 是動病의 경우에도 脈動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병으로 보고 진단하는 방법에 속한다¹³⁾. 『素問·三部九候論』에서도 “삼부구후를 관찰하여 유독 작거나 크며 빠르거나 느리며 열감이 있거나 차가운 것 그리고 아래로 꺼져 있는 것은 모두 병이다. (察九候獨小者, 病, 獨大者, 病, 獨疾者, 病, 獨遲者, 病, 獨熱者, 病, 獨寒者, 病, 獨陷下者, 病.)”라고 하여 脈動의 이상이 곧 邪氣의 발현임을 설명하고 있다. 간혹 眞氣와 邪氣가 결합하여 오히려 과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때는 더욱 三部九候法을 통하여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이와 같이 經脈에 風邪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素問·金匱眞言論』에서도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八風이 있고 경맥에 五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八風이 사기를 발하여 經風이 되고 오장을 건드려 사기가 병을 일으킵니다. (黃帝問曰, 天有八風, 經有五風, 何謂. 岐伯對曰, 八風發邪, 以爲經風, 觸五藏, 邪氣發

病.)”라고 말하고 있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를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사기가 絡脈을 떠나 經으로 들어와 혈맥 중에 머물 때 그 寒溫이 조화를 잃으면 파도처럼 일어나 때때로 왕래하니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帝曰, 候氣奈何. 岐伯曰, 夫邪去絡入於經也, 舍於血脈之中, 其寒溫未相得, 如涌波之起也¹⁵⁾, 時來時去, 故不常在.)”라 하였는데, 특히 여기서 寒溫에 대하여 張介賓은 邪氣의 虛實이라고 주석하였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몸의 陰陽 규형이 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脈의 움직임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邪氣가 있는 것을 말해준다. 『靈樞·終始』에서 “무릇 이를 자침할 때 손가락으로 눌러 맥동이 실하면서 빠르면 빨리 瀉하고 허하면서 느리면 補해야 하니 이를 어기면 병이 더욱 심해진다. (凡刺此者, 以指安之, 脈動而實且疾者, 疾瀉之, 虛而徐者, 則補之, 反此者, 病益甚.)”라 하여 脈이 뛰는 것이 實하면서 빠를 때에는 瀉法을 써야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편에서 또한 “邪氣

13) 黃龍祥은 『中國鍼灸學術史大綱』(서울: 法仁文化社, 2005: 314.)에서 “是動則病”의 뜻은 곧 이러한 맥동에 이상이 생기면 (평시에 박동하지 않거나 박동이 뚜렷하지 않다가 병이 들었을 때 박동이 뚜렷한 것을 포함한다.)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4) 『素問·離合眞邪論』에서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습시다. 그러나 眞氣와 邪氣가 합하여 과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살펴습니까? 기백이 말하기를 삼부구후의 성하고 허함을 잘 더듬어 살펴 조절해야 하니, 그 좌우 상하가 서로 맞지 않거나 줄어든 것을 관찰하는 것이며 병이 든 藏으로써 예후를 기약합니다. (帝曰, 善. 然眞邪以合, 波瀾不起, 候之奈何. 岐伯曰, 審捫循三部九候之盛虛而調之, 察其左右上下相失及相減者, 審其病藏以期之.)”라 하였다.

15) 張介賓은 『類經·鍼刺類·候氣察三部九候』에서 “邪氣는 차갑고 正氣는 따뜻하니 그러므로 서로 맞지 않는다. 血氣가 본래 고요한데 사기가 요동치는 것이 마치 물이 본래 고요한데 바람이 휘젓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과도가 일어난다. (邪氣寒, 正氣溫, 故不相得. 血氣本靜而邪搖之, 亦猶水本靜而風搖之, 故如湧波之起也.)”라 하여 邪氣는 차갑고 正氣는 따뜻한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來也緊而疾，穀氣來也徐而和。”라 하여 邪氣가 오는 것이 팽팽하면서도 빠르다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素問·玉機眞藏論』에서는 “갑작스런 허함이 몸에 들어와 이르면 오장의 기가 끊어져 막히고 맥도가 통하지 않아 기가 왕래할 수 없으니 떨어지거나 물에 빠진 것과 같이 예후를 기약할 수 없다. (急虛身中卒至，五藏絕閉，脈道不通，氣不往來，譬於墮溺，不可爲期.)”라 하여 脈度가 불통할 경우에는 邪氣가 강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히려 氣가 往來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교적 虛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經氣는 끊임없이 往來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단, 病邪의 경우처럼 높고 강하게 솟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靈樞·小鍼解』에서는 “麤守關者，守四肢而不知血氣正邪之往來也.”라 하여 血氣와 正氣, 邪氣가 모두 往來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곧 經氣와 邪氣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邪氣가 正氣의 運行을 따라 같이 들어와서 經氣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邪氣는 항상 사시 혈기 변화를 따라 침입한다. 그 변화에 미쳐서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반드시 經氣를 쫓아가야 邪氣를 몰아낼 수 있으니 邪氣를 없애면 기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是故邪氣者，常隨四時之氣血而入客也。至其變化，不可爲度，然必從其經氣，辟除其邪，除其邪，則亂氣不生.)”라 하였는데, 邪

氣가 항상 四時 변화의 기운을 따라서 침입하여 변화를 일으켜 변화무쌍하게 나타나지만 반드시 經氣를 따라가서 邪氣를 제거해야 하고 그러면 氣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靈樞·根結』에서도 “眞氣稽留，邪氣居之也.”라 하였는데, 결국 經氣 또는 眞氣가 활동하는 곳에 運行이 막혀서 병이 시작되고 그것을 틈타서 邪氣가 들어오게 되므로 眞氣와 邪氣는 같은 공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經氣의 往來와 氣至

치료 시 침을 놓을 때는 經氣의 往來를 잘 살펴야 하며 이를 모르면 下工이라 하였다. 經氣의 往來를 살핀은 구체적으로 기가 이르는 시간과 공간을 미리 알고 또 補瀉의 手技法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可玩往來，乃施於人.”이라 하여 經氣의 往來에 숙달되어야 사람에게 침을 시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九鍼十二原』에서 “어리석은 의사(麤工)는 형체를 지키고 뛰어난 의사(上工)는 神을 지키니 사기가 들어와 문 앞에 있는데도 그 병을 보지 못하니 어찌 그 근원을 알겠는가. 鍼刺의 세밀함은 기의 빠르고 느림을 살피는데 있으니 추공은 관문만을 지키고 상공은 기를 지키는 것이다. 기의 움직임(機微)은 허공(天空 또는 空穴)을 떠나지 않으니 허공 중의 기들은 맑고 깨끗하면서도 미세하여 그 기가 오는 것을 맞이하기 어렵고 가는 것을 쫓아가기 어렵다. (麤

守形, 上守神, 神乎神, 客在門, 未覩其疾, 惡知其原. 刺之微在速遲, 麤守關, 上守機. 機之動, 不離其空, 空中之機, 清靜而微, 其來不可逢, 其往不可追.”라 하였고, 『靈樞·小鍼解』에서도 “麤守關者, 守四肢而不知血氣正邪之往來也.”라 하여 麤工 즉 下工은 단지 四肢關節¹⁶⁾만을 지키고 經氣의 往來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였다¹⁷⁾. 이와 같은 이유는 이러한 經氣의 성쇠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補瀉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즉, 經氣(眞氣) 또는 邪氣의 往來를 미리 알아 지나가는 장소와 시간을 맞추어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補瀉法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침을 놓는 전후에 기가 이르는 것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靈樞·行鍼』에서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九鍼於夫子, 而行之於百姓, 百姓之血氣, 各不同形, 或神動而氣先鍼行, 或氣與鍼相逢, 或鍼已出, 氣獨行, 或數刺乃知, 或發鍼而氣逆, 或數刺病益劇. 凡此六者, 各不同形, 願聞其方.”라 하였다. 즉, 神이 먼저 움직여 기를 끌고 가서 침을 놓기 전에 이르는 경우, 혹은 기가 침을 놓은 동시에 이르는 경우, 혹은 침을 이미 뺐는데 기만 홀로 나중에 이르는 경우, 혹은 여러 번 자침

을 하고 나서야 겨우 기가 이른 것을 알게 되는 경우, 혹은 침을 놓았는데 기가 도리어 역하는 경우, 혹은 여러 번 자침한 후 병이 더욱 악화된 경우 등이 있다고 보았다¹⁸⁾. 여기서 神이 動하여 기가 침보다 먼저 이르는 경우는 刺鍼 전에 미리 긴장하거나 놀라서 기가 안정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침을 놓는 순간 기가 바로 이르는 것이 陰陽이 가장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편에서도 “黃帝曰, 其氣與鍼相逢, 奈何. 岐伯曰, 陰陽和調, 而血氣淖澤滑利, 故鍼入而氣出疾而相逢也.”라 하여 陰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血氣가 녹아 잘 흘러 다니기 때문에 침을 놓자마자 기가 빠르게 나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침을 놓자마자 陰陽의 조화 속에서 이르는 기가 바로 經氣이다. 이 때 기가 이르는 것은 得氣¹⁹⁾의 한 선행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즉, 제대로 침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得氣가 되어야 하며 得氣가 되기 위해서는 기가 제대로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1,10)}.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허한 것을 자침할 경우 실패지기를 기다리고 실한 것을 자침할 경우 허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며, 經氣가 이미 이르거든 조심해서 지켜 잃지

16) 여기서 關節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기가 통행하고 모이는 곳을 말하며 이곳에서 질병이 많이 나타난다. 즉 下工은 關門만을 지키면서 이미 질병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를 기다려서 치료한다는 것이다.

17) 『素問·六節藏象論』에서 “이른바 이르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기가 이른 때를 말한다. 조심해서 그 때를 살펴야 기의 변화를 예기할 수 있고, 때를 놓쳐 잘못 살펴면 오행에 따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기가 안에서 생겨 의사가 능히 막을 수 없게 된다. (所謂求其至者, 氣至之時也. 謹候其時, 氣可與期, 失時反候, 五治不分, 邪僻內生, 工不能禁也.)”라 하여 기가 오는 때를 잘 살펴야 앞으로 병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 여섯 경우 중 뒤의 두 가지는 暈鍼처럼 의사가 誤治하여 생긴 刺鍼의 부작용들이다.

19) 得氣는 일반적으로 자침 시 酸, 麻, 重, 脹 등으로 나타나는 자각 표현을 말하는데 得氣는 이론적으로 氣至 현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않아야 한다. (刺虛者須其實, 刺實者須其虛, 經氣已至, 慎守勿失.)”라 하였고, 『靈樞·鍼解』에서도 “經氣가 이미 이르거든 조심해서 지켜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를 변동시켜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經氣已至, 慎守勿失者, 勿變更也.)”라 하여 經氣가 이른 후에 잘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經氣는 주로 邪氣가 아닌 眞氣, 正氣, 穀氣 등으로 보아야 한다. 『靈樞·終始』에서도 “그러므로 처음 자침하면 양사가 나오고 다시 자침하면 음사가 나오고 셋째로 자침하면 곡기가 이르니 곡기가 이르면 자침을 그치라. (故一刺則陽邪出, 再刺則陰邪出, 三刺則穀氣至, 穀氣至而止.)”고 하여 陰陽의 邪氣를 먼저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穀氣가 이르렀을 때 자침을 그치라고 하였다¹¹⁾. 즉 刺鍼의 최종 목표를 穀氣가 이르는 데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經氣가 제대로 이르렀을 때 바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靈樞·九鍼十二原』에서 “氣至而有效, 效之信, 若風之吹雲, 明乎若見蒼天, 刺之道畢矣.”라 하여 침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이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靈樞·終始』에서도 역시 “所謂氣至而有效者.”라 하여 氣至가 곧 치료 기전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眞氣가 이르는 것이 刺鍼의 목

적이지만 이른 후에는 바로 刺鍼을 그치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계속 刺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刺之而氣不至, 無問其數. 刺之而氣至, 乃去之, 勿復鍼.”라 하였다. 즉 經氣가 이르기 전까지는 횟수에 상관없이 刺鍼을 하고 經氣가 이르면 바로 빼서 다시 침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같은 편에서 “그 動靜을 파악하여 사기와 정기를 알아낸다. 오른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조정하다가 기가 이르면 그친다. (聽其動靜, 知其邪正. 右主推之, 左持而御之, 氣至而去之.)”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다¹²⁾. ‘氣至而去之’에 대하여 『靈樞·小鍼解』에서는 “氣至而去之者, 言補瀉氣調而去之也.”라 하여 구체적으로 補瀉法을 시행하다가 기가 이미 조절되었으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靈樞·終始』에서 “以移其神, 氣至乃休.”¹³⁾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이와 같이 補瀉法을 사용하여 기를 잘 인도하면 眞氣는 거처하고 邪氣는 빠져나가게 된다. 『靈樞·邪客』에서 “瀉欲端以正, 補必閉膚, 輔鍼導氣, 邪得淫泆, 眞氣得居.”라 하였다. 瀉法을 쓸 때에는 단정하게 바로 자침하고 빼서 기가 밖으로 잘 빠져 나가게 해야 하며 補法에서는 반드시 피부를 닫는데, 이와 같이 침을 운용하여 기를 인도함으로

① 『靈樞·終始』에서도 “凡刺之道, 氣調而止.”라 하여 기를 조절하고 나면 곧 刺鍼을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張介賓은 『類經·鍼刺類·得氣失氣在十二禁』에서 “단지 조용히 하여서 그 神을 옮길 뿐이다. 진기가 이미 이르렀는지를 살펴 이내 침을 그친다. (但欲從容, 以移其神耳, 候其眞氣已至, 乃止鍼也.)”라 하였다.

써 邪氣는 밖으로 넘쳐 나가고 眞氣가 거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²⁾.

得氣法에서 기를 이르게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手技法을 통하여 得氣를 유도하는 것이 있고²²⁾ 또 하나는 留鍼을 시켜서 得氣를 유도하는 것이다²³⁾. 『素問·鍼解』에서는 “刺實須其虛者, 留鍼陰氣隆至, 乃去鍼也. 刺虛須其實者, 陽氣隆至, 鍼下熱乃去鍼也.”라 하여 留鍼을 시켜서 虛實을 기다리면 陰氣 또는 陽氣가 이르게 되는데, 특히 陽氣가 이르면 침 끝에 열감이 느껴지니 이때 침을 빼라고 하였다. 같은 편에서도 “刺虛則實之者, 鍼下熱也, 氣實乃熱也. 滿而泄之者, 鍼下寒也, 氣虛乃寒也.”라 하여 補法을 행하면 침 끝에 열감이 느껴지고 瀉法을 쓰면 냉기를 느낀다고 하였다. 즉 補法은 陽氣를, 瀉法은 陰氣를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침을 놓은 후 得氣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침을 놓을 때에도 역시 經氣가 머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놓아야 한다. 침끝이 그곳에 가면 바로 기가 이르게 된다. 일단 기가 用事하는 곳에 침이 이른 후 補瀉 등의 작용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¹²⁾. 四時刺法의 경우에 계절에 따라 刺鍼의 淺

深을 달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²⁴⁾. 이것을 『內經』에서는 기와 만난다고 표현하였는데, 『靈樞·衛氣行』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삼가 기의 있는 곳을 살펴 자침해야 하니 이를 ‘때를 만난다’고 한다. (是故謹候氣之所在而刺之, 是謂逢時.)”라 하였다.

기가 있는 장소를 經氣에 국한하여 살펴 본다면 『內經』에서는 上中下로 설명하였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 “夫氣之在脈也, 邪氣在上, 濁氣在中, 清氣在下. 故鍼陷脈則邪氣出, 鍼中脈則濁氣出, 鍼太深則邪氣反沈病益.”이라 하여 經氣를 邪氣, 濁氣, 清氣로 나누고 먼저 邪氣와 濁氣를 배출하고 清氣는 오히려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刺鍼의 깊이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清氣가 오히려 經氣에 가까우며 濁氣는 營氣가 울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三刺法과 연결된다.

『靈樞·官鍼』과 『靈樞·終始』에서 三刺法을 설명하였는데, 『靈樞·官鍼』에서는 “맥이 거처하는 곳이 깊어 볼 수 없는 경우는 자침할 때 미세하게 넣고 오래 留鍼시켜서 그 空穴에 脈氣가 이르도록 한다. 맥이 얇은 경우는 자침하지 않고 눌러서 그 맥을 짚고

② 『靈樞·刺節眞邪』에서는 “침을 쓰는 자는 반드시 먼저 경락의 허실을 살펴야 하는데, 짚어서 따라가며 누르면서 침을 뺀 뒤 그 반응하는 움직임을 살펴보고 나서 자침하여 기를 안정시킨다. (用鍼者, 必先察其經絡之實虛, 切而循之, 按而彈之, 視其應動者, 乃後取之而下之.)”라 하여 침을 놓은 후 手技法을 시행하고 그 움직이는 반응을 살펴라고 하였다.

③ 『素問·離合眞邪論』에서 “고요하게 오래 留鍼을 시키면서 기가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마치 귀한 사람을 기다리듯이 하여 해가 저무는지도 모르게 마음을 비우라. (靜以久留, 以氣至爲故, 如待所貴, 不知日暮.)”라고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한 상태에서 留鍼을 하라고 하였다.

④ 四時刺法은 內經에서 편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나 四時의 변화에 따라 絡脈, 經脈, 五輸穴 등에 淺深과 위치에 따라 刺鍼을 달리하는 것이다. 목표로 하는 기가 머무른 곳에 침을 이르게 하여 해당 기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서 자침하여 精氣가 빠져나가지 않고 邪氣만 빠져나가도록 한다. 이른바 三刺는 곡기를 나오게 하는 것이다. 먼저 얇게 자침하여 피부를 뚫어 양사를 내보내고, 다시 자침하여 음사를 내보내는 것은 좀 더 깊이 피부를 뚫고 肌肉에 이르게 하지만 分肉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미 分肉으로 들어가면 곡기가 나온다. 그러므로 「刺法」에서 ‘처음 얇게 자침하여 사기를 몰아내어 혈기를 이르게 하고 다음에 깊이 자침하여 음기의 사기를 이르게 하며 가장 마지막에는 아주 깊이 자침하여 곡기를 안정시킨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脈之所居, 深不見者, 刺之微內鍼而久留之, 以致其空脈氣也. 脈淺者, 勿刺, 按絕其脈, 乃刺之, 無令精出, 獨出其邪氣耳. 所謂三刺, 則穀氣出者. 先淺刺絕皮, 以出陽邪, 再刺則陰邪出者, 少益深, 絕皮致肌肉, 未入分肉間也, 已入分肉之間, 則穀氣出. 故刺法曰, 始刺淺之, 以逐邪氣, 而來血氣, 後刺深之, 以致陰氣之邪, 最後刺極深之, 以下穀氣, 此之謂也.)”라 하였다. 즉, 脈氣가 깊이 있을 경우에는 오래 留鍼을 하여 補하고 脈氣가 얇게 있으면서 邪氣가 있을 경우에는 脈을 누른 후 자침을 하되 精氣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마지막에는 穀氣를 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體表의 陽邪와 肌肉의 邪氣(陽邪와 陰邪)를 제거한 후 가장 깊은 分肉之間을 刺鍼하면 穀氣가 나오는데 이를 穀氣를 가라앉히는 것이라 하였다¹¹⁾.

『靈樞·終始』에서는 “보통 刺鍼의 형식은 세 번 자침하여 곡기까지 이르는 것이다. 邪

氣가 잘못 합쳐지고 음양이 자리가 뒤바뀌며 역순이 서로 반대가 되고 뜨고 가라앉은 기운이 위치가 바뀌어 四時 變化를 따르지 않으면 정기가 막혀서 사기가 넘쳐나게 되니 刺鍼을 해야만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 刺鍼하면 陽邪가 나오고 다시 자침하면 陰邪가 나오고 셋째로 자침하면 곡기가 이르니 곡기가 이르면 자침을 그친다. 이른바 곡기가 이르렀다는 것은 補하고 나서 실패하고 瀉하고 나서 허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곡기가 이름을 알 수 있다. 사기만 혼자 사라진다는 것은 음양이 아직 조절되지 않았어도 병이 나올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補하면 실패하고 瀉하면 허해져서 통증이 바로 침을 따라 없어지지 않더라도 병이 반드시 쇠하여 없어질 것이다. (凡刺之屬, 三刺至穀氣. 邪僻妄合, 陰陽易居, 逆順相反, 沈浮異處, 四時不得, 稽留淫泆, 須鍼而去. 故一刺則陽邪出, 再刺則陰邪出, 三刺則穀氣至, 穀氣至而止. 所謂穀氣至者, 已補而實, 已瀉而虛, 故以知穀氣至也. 邪氣獨去者, 陰與陽未能調, 而病知愈也. 故曰, 補則實, 瀉則虛, 痛雖不隨鍼, 病必衰去矣.)”라 하여, 여기서는 마지막 三刺를 하면 穀氣 즉 經氣가 이르고 하였다. 穀氣가 이른다는 것은 이미 補瀉를 진행하여 虛實을 조절되는 것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經氣가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穀氣가 먼저 이르지 않으면 補瀉의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으로 三刺를 하여 사기가 물러가면 아직 곁으로 음양이 조절되지 않아 통증이 남아있더라도 병이 장차 나올 것임을 알 수

있다. 『靈樞·官鍼』에서 “以下穀氣”라 한 것은 곧 穀氣가 “穀氣來也，徐而和.”의 경우처럼 안정되는 것이다.

5. 經氣의 往來와 刺鍼法

침을 놓는 시기를 살펴보면 經氣 또는 邪氣가 往來하는 도중에 바로 지나가는 순간 發鍼한다고 하였다. 發鍼은 침을 놓는 것을 마치 弓弩를 발사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 순간은 매우 짧은데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침을 놓아야 할 때에 이르러 눈 깜짝할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手技法을 잘 하여 침 끝이 빛나면서 원활하게 움직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뜻을 잘 살펴 변화에 대처함을 잘 살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아득하다 하여 그 모습을 알 수 없으니, 까마귀가 모이고 기장이 많이 패인 것을 보다가 그 날 아간 것을 보고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橫弩를 쏘듯이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발사해야 한다. (至其當發，間不容曠，手動若務，鍼耀而勻，靜意視義，觀適之變，是謂冥冥，莫知其形，見其烏烏，見其稷稷，從見其飛，不知其誰，伏如橫弩，起如發機.)”라고 하였다. 經氣가 지나가는 이 짧은 순간을 놓치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若先若後者，血氣已盡，其病不可下.”라 하여 조금이라도 먼저 發鍼을 하거나 뒤에 하면 血氣가 이미 다

없어지게 되어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⑤.

침을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발사하므로 마치 방아쇠에 터력을 얹어놓은 것처럼 예민하게 해야 한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 “터럭도 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사기가 이르는 때를 기다려 침을 발하여 사하는 것이다. 먼저 하거나 뒤에 하면 혈기가 이미 다하여 병이 사라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치료할 줄을 아는 것이 기를 발사하는 것과 같고 치료할 줄 모르는 것이 두드러도 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 하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不可掛以髮者，待邪之至時而發鍼瀉矣，若先若後者，血氣已盡，其病不可下，故曰，知其可取如發機，不知其取如扣椎，故曰，知機道者不可掛以髮，不知機者扣之不發，此之謂也.)”이라 하였다. 여기서 發機는 방아쇠 틀을 당기는 것이다. 椎는 바로 방아쇠 공이를 말한다. 예민한 사람은 터럭 하나를 올려놓아도 발사가 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둔감한 사람은 방아쇠를 두드러도 발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틀의 도를 아는 사람은 터럭도 걸어 놓을 수 없으며 기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드러도 발사하지 않는다. 그 기의 왕래를 알아야 병을 기약할 수 있으니 麤工은 어둡구나. 묘하도다! 上工만 알고 있구나. (知機之道者，不可掛以髮，不知機

⑤ 經氣가 五臟을 떠나 순간적으로 經脈을 지나가는 것도 弓弩를 발사하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靈樞·動脈』에서 “기가 臟을 떠나 寸口로 나오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져 마치 弓弩를 쏘 때나 물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 魚際 부위로 올라가서는 오히려 쇠약해지고 남은 기만이 흩어져 위로 역상하니 그러므로 운행이 미약하게 된다.(氣之離藏也，卒然如弓弩之發，如水之下岸，上於魚以反衰，其餘氣衰散以逆上，故其行微.)”라 하였다.

道, 叩之不發. 知其往來, 要與之期, 蠱之闔乎, 妙哉, 工獨有之.)”라 하였다.

위에서 말한 대로 언제 자침하는가에 따라, 또는 예민하게 진단을 잘 하는가에 따라 의사의 실력을 나눌 수 있다. 『靈樞·逆順』에서 “黃帝曰, 候其可刺奈何. 伯高曰, 上工, 刺其未生者也. 其次, 刺其未盛者也. 其次, 刺其已衰者也. 下工, 刺其方襲者也, 與其形之盛者也, 與其病之與脈相逆者也. 故曰, 方其盛也, 勿敢毀傷, 刺其已衰, 事必大昌. 故曰, 上工治未病, 不治已病, 此之謂也.”라 하여 上工은 병이 아직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서 刺鍼을 하며 그 다음은 기가 성해지기 전에 瀉法을 쓰거나 이미 쇠한 후에 補法을 쓰고 下工은 막 邪氣가 침습하여 形體와 더불어 성해진 것을 치료하거나 病이나 脈과 서로 어긋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는 上工의 治未病을 설명한 것이다.

6. 經氣의 往來와 補瀉

經氣가 과동으로 다가올 때에는 일반적으로 세력이 강하고 지나갈 때에는 세력이 약해진다. 邪氣라고 하더라도 올 때는 세력이 강하고 갈 때는 이미 正氣를 손상시켰으므로 몸 자체가 虛證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瀉法을 쓸 경우 때에는 기가 올 때, 補法을 쓸 경우에는 기가 갈 때 침을 놓으라고 하였다. 『靈樞·衛氣行』에서 “그러므로 말하기를 실증을 자침하는 경우는 기가 오는 것을

자침하고 허증을 자침하는 경우는 기가 가는 것을 자침한다고 한다. 이것은 기가 있다가 사라지는 때를 말하니 허실을 살펴서 자침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삼가 기의 있는 곳을 살펴 자침해야 하니 이를 ‘때를 만난다’고 한다. (故曰, 刺實者, 刺其來也, 刺虛者, 刺其去也. 此言氣存亡之時, 以候虛實而刺之. 是故謹候氣之所在而刺之, 是謂逢時.)”라 하여 瀉法을 사용할 때에는 기가 오는 것을 刺鍼하며 補法을 사용할 때에는 기가 가는 것을 刺鍼한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前後는 긴 시간이 아니라 기가 存亡하는 찰나의 前後로서 역시 逢時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往來를 逆順으로 보았는데 “가는 것은 역이고 오는 것은 순이니 명확히 역순을 알아서 바로 행하면 의심이 없을 것이다. 맞이하어 기를 빼앗으면 어찌 허함을 얻지 못하겠으며, 쫓아가서 가지런히 하면 어찌 실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맞이하고 쫓아가되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면 鍼道가 여기에서 완성된다. (往者爲逆, 來者爲順, 明知逆順, 正行無問. 迎而奪之, 惡得無虛. 追而濟之, 惡得無實. 迎之隨之, 以意和之, 鍼道畢矣.)”라 하여 오는 것을 順으로 가는 것을 逆으로 보았다. 이는 正氣의 虛實을 말한 것으로 經絡의 기가 올 때는 실해지다가 지나가면 허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인 四時 기운의 運行 逆順도 마찬가지이다^⑭.

⑭ 邢玉瑞, 張喜德, 苗彥霞 등은 ‘中醫順勢思維研究’(陝西中醫學院學報. 2001 ; 24(1) : 4-6.)에서 인체 氣機의 勢에 순응하는 승강출입과 더불어 經氣 運행의 勢에 순응하는 것도 중요한 順勢의 하나로 보았다.

기가 이르는 전후에 迎而奪之와 追而濟之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각각 瀉法과 補法을 말한다. 『靈樞·小鍼解』에서 “맞이하여 빼앗는 것은 瀉法이고 쫓아가서 가지런히 하는 것은 補法이다. (迎而奪之者, 瀉也. 追而濟之者, 補也.)”라 하였고 『靈樞·終始』에서 “그러므로 瀉하려면 맞이하 고 補하려면 쫓아가서 迎隨할 줄을 알아야 기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故瀉者迎之, 補者隨之, 知迎知隨, 氣可令和.)”라 하였다. 여기서 隨字는 追字와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모두 쫓아간다는 의미이다. 또한 迎字도 거스를 逆字와 통한다⁶⁾. 즉, 기가 올 때 迎而奪之하고 기가 갈 때 追而濟之하게 되는데, 迎而奪之는 기운이 오는 것을 맞아들이면서 맞부딪쳐 그 세력을 없애는 것이고 追而濟之는 기가 물러나는 것을 쫓아가면서 기를 정리하는 것이다. 정리한다는 것은 經氣 또는 邪氣가 휩쓸고 지나갈 때 일시적인 虛의 상황이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기가 비정상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濟라는 것은 구체하다 또는 가지런히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⁶⁾. 迎而奪之에서 기와 맞서는 것을 『內經』에서는 衝이라 하였다. 衝은 부딪치다, 마주치다는 뜻이다⁶⁾. 『靈樞·邪客』에서 “그러므로 本腧는 모두 기의 허실과

빠르고 느림에 따라 치료한다. 이것이 마주치는 것을 따라 瀉하고 기가 쇠해지는 것을 따라 補하라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사기를 없앨 수 있고 眞氣가 견고해지는데 이를 天時의 운행 순서에 따른다고 한다. (故本腧者, 皆因其氣之虛實疾徐以取之, 是謂因衝而瀉, 因衰而補, 如是者, 邪氣得去, 眞氣堅固, 是謂因天之序.)”이라 하여 衝하는 것에 따라서 瀉法을 시행하고 쇠하는 것에 따라서 補法을 시행함으로써 邪氣를 몰아내고 眞氣를 견고하게 하는데 이것이 天地의 氣運行을 따르는 것이라 말하였다. 迎隨補瀉는 후대에 刺鍼의 방향으로 사용되었는데¹⁵⁾ 원래 『內經』에서는 虛實의 변화에 따라 刺鍼하는 補瀉法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었다^{8,16,17)}. 『內經』에 나오는 徐疾補瀉, 呼吸補瀉, 開闔補瀉 등이 오히려 구체적인 補瀉法들이며 迎隨補瀉는 이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補瀉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瀉法의 경우 邪氣와 맞설 때 邪氣가 매우 성할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기가 지나간 후 正氣가 극도로 쇠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補法이라도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 “方其來也, 必按而止之, 止而取之, 無逢其衝而瀉之. 眞氣者, 經氣

27) 黃龍祥은 『中國鍼灸學術史大綱』(서울 : 法仁文化社, 2005 : 975.)에서 “『內經』에서 말한 ‘영수(迎隨)’는 원래 어떤 구체적인 보사방법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보사(補瀉)’에 대한 총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林鎮錫도 ‘迎隨補瀉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 12(2) : 281-292.)에서 “迎隨는 보사하는 종합적인 원칙을 의미하지 단순한 手技法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五輸穴의 補瀉도 『靈樞·本輸』에 의하여 “體幹 方向이 補하는 것이고, 사지말단 方向이 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의 手技法이란 바로 자침의 방향으로서 迎隨補瀉하는 것을 말한다. 李振海는 ‘迎隨本義初探’ (遼寧中醫雜誌, 2006 ; 33(7) : 877-878.)에서 가장 이른 鍼向 개념의 迎隨補瀉를 金代 張璧의 『濟生拔萃·六枝子迎隨補瀉』로 보고 있다.

也, 經氣大虛, 故曰, 其來不可逢, 此之謂也^㉔. 故曰, 後邪不審, 大氣已過, 瀉之則眞氣脫, 脫則不復, 邪氣復至, 而病益蓄, 故曰, 其往不可追, 此之謂也.”이라 하였다. 여기서 ‘方其來’라고 하는 것은 바야흐로 사기의 세력이 막강해지려고 하는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其來不可逢’의 의미는 원래 기가 오는 때에 맞서서 사하는 것이 맞으나 그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㉕. 반대로 ‘其往不可追’는 뒤에 남은 邪氣를 보지 못하고 大氣(經氣)가 이미 지나간 후에 瀉法을 쓰게 되면 眞氣가 탈하여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병만 쌓이게 되므로 기가 지나간 후에는 刺鍼하지 말라는 뜻이다. ‘追而濟之’가 조심스럽게 補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이미 經氣가 지나간 후에 함부로 자침을 하여 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됨을 지적한 것이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도 “靈守關, 上守機. 機之動, 不離其空, 空中之機, 清靜而微, 其來不可逢, 其往不可追.”라 하여 上工은 미세한 機微의 움직임을 살필 줄 알아 空中(天空 또는 經穴)의 清靜하고 미세한 기운 사이에 기가 오고 가는 것을 살피되 함부로 補瀉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不可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靈

樞·逆順』에서도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伯高가 말하기를, 兵法에서 마주 오는 기를 맞이하려 하지 말며, 잘 짜여진 陣營을 깨뜨리려고 하지 말라 하였습시다. 그러므로 刺法에서도 말하기를 열이 후끈하게 올라있는 경우를 刺鍼하지 말며, 땀이 흥건히 새어나오는 경우를 刺鍼하지 말며, 脈이 어지럽게 섞여서 오는 경우를 刺鍼하지 말며, 病症과 脈相이 서로 거스르는 경우에도 刺鍼하지 말아야 합니다. (黃帝曰, 候之奈何. 伯高曰, 兵法曰, 無迎逢逢之氣, 無擊堂堂之陣. 刺法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漉漉之汗, 無刺渾渾之脈, 無刺病與脈相逆者.)”라 하여 經氣가 사납게 올 경우에는 刺鍼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黃帝曰, 候其可刺奈何. 伯高曰, 上工, 刺其未生者也. 其次, 刺其未盛者也. 其次, 刺其已衰者也. 下工, 刺其方襲者也, 與其形之盛者也, 與其病之與脈相逆者也.”라 하여 刺鍼의 시기를 잘 결정하도록 하였다.

기의 往來에 따라 刺鍼의 시기와 깊이 등을 고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소위 員方 補瀉의 개념이 생겼다. 『素問·八正神明論』에서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補瀉에 대하여 들었으나 아직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기

㉔ 張介賓은 『類經·鍼刺類·候氣察三部九候』에서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사기가 반드시 심해지는데 사기가 비록 성하더라도 아직 기운으로 실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마땅히 상세히 살피야 하며 그 마주치는 것을 만나 함부로 瀉해서는 안 된다. 眞氣가 실하지 않은데 맞이하여 瀉하면 사기가 비록 없어지더라도 眞氣가 반드시 크게 허해질 것이니 그러므로 ‘그 오는 기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였다. (不爲蚤治, 其邪必甚, 邪氣雖盛, 恐其氣未必實, 故宜詳審, 不可因逢其衝, 輒瀉之也. 眞氣不實, 迎而瀉之, 邪氣雖去, 眞氣必太虛矣, 故曰其來不可逢也.)”라 하여 眞氣가 허할 경우에는 瀉法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하였다.

㉕ 『靈樞·刺節眞邪』에서도 “癰邪를 자침할 경우 파도를 맞이하지 말고 쉽게 성질을 바꾸어 화농하지 않도록 하는데 무르게 만드는 치법을 자주 사용하여 본래 자리를 떠나 있던 곳을 불안하게 만들어 사기가 흩어져 나오도록 한다. (凡刺癰邪, 無迎隨, 易俗移性, 不得膿, 脆道更行, 去其鄉, 不安處所乃散亡.)”라 하여 역시 邪氣가 성할 때에는 맞닥뜨리지 말라고 하였다.

백이 말하기를 瀉할 경우에는 반드시 方法을 써야 하니 方이라는 것은 기가 막 성해진 것으로서 달이 막 다 찻거나 날씨가 막 따뜻해졌거나 몸이 막 안정되어 충만해진 것 등입니다. 숨을 막 들이쉬면서 침을 놓고 이윽고 다시 막 숨을 들이쉬기를 기다려 轉鍼을 하며 이윽고 다시 막 숨을 내쉬기를 기다려 서서히 침을 뽑니다. 그러므로 瀉할 경우에는 반드시 方法을 써서 기를 운행시키라고 합니다. 補할 경우에는 반드시 員法을 써야 하니 員이라는 것은 기가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刺鍼하여 반드시 그 榮을 적중시키고 다시 들이쉬면서 침을 뽑니다. 그러므로 員과 方은 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神을 잘 기르는 자는 반드시 형체의 肥瘦와 營衛血氣의 성쇠를 알아야 합니다. (帝曰, 余聞補瀉, 未得其意. 岐伯曰, 瀉必用方, 方者, 以氣方盛也, 以月方滿也, 以日方溫也, 以身方定也, 以息方吸而內鍼, 乃復候其方吸而轉鍼, 乃復候其方呼而徐引鍼, 故曰瀉必用方, 其氣而行焉. 補必用員, 員者, 行也, 行者, 移也, 刺必中其榮^③, 復以吸排鍼也. 故員與方, 非鍼也. 故養神者, 必知形之肥瘦, 榮衛血氣之盛衰.)”라 하여 瀉法에는 方을 쓰고 補法에는 員을 쓰라고 하였다. 여기서 方(空間, 區域, 靜止)은 기가 바야흐로 성해진 것으로 形 속에 충만하여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기를 瀉하여 행하도록 한다. 員(時間, 循環, 運動)은 반대로 기를 돌려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員方은 단순한 刺鍼 手技法이 아니라 하였으니 곧 기의 往來와 盛衰를 따라 적합하게 침을 놓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靈樞·官能』에서는 “瀉할 경우에는 반드시 員法을 써야 하니, 끊고 들어가 돌리면 기가 행할 것이며 빨리 자침하였다가 서서히 빼면 邪氣가 이내 나올 것이며 펼쳐서 迎法을 써서 그 穴位를 흔들어 넓히면 邪氣가 나오는 것이 빠를 것이다. 補할 경우에는 반드시 方法을 써야 하니 밖으로 피부를 당겨 그 입구에 정확히 들어맞게 하고 왼손으로 그 중심을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肌膚를 밀어 조금씩 鍼을 돌리면서 서서히 밀어 넣되, 반드시 자세를 단정히 바로 하여 편안히 안정시키고 마음을 단단히 하여 놓지 말며 가만히 留鍼시키다가 기가 내려가면 빨리 침을 빼고 피부를 밀어서 밖의 문을 닫으면 眞氣를 보존할 수 있다. 鍼을 쓰는 요점은 그 神을 잃지 않는 데 있다. (瀉必用員, 切而轉之, 其氣乃行, 疾而徐出, 邪氣乃出, 伸而迎之, 搖大其穴, 氣出乃疾. 補必用方, 外引其皮, 令當其門, 左引其樞, 右推其膚, 微旋而徐推之, 必端以正, 安以靜, 堅心無解, 欲微以留, 氣下而疾出之, 推其皮, 蓋其外門, 眞其乃存, 用鍼之要, 無忘其神.)”라고 하여 員方の 개념을 반대로 말하고 있으나, 『素問·八正神明論』에서는 員方の 상황을 대상으로 補瀉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靈樞·官能』에서는 각각 員方の 상태가 되도록 그 목표를 설정한 것이

③ 榮은 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穴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곳을 刺鍼하여 머물러있는 기를 운행시킨다.

기 때문에 다르게 말한 것이다.

員方 補瀉 이외에 氣至와 관련되어 陰陽 각각의 氣가 이르는 것을 補瀉로 보기도 하였다. 『素問·鍼解』에서 “刺實須其虛者, 留鍼陰氣隆至, 乃去鍼也. 刺虛須其實者, 陽氣隆至, 鍼下熱乃去鍼也.”라 하여 陰陽의 氣가 각각 따로 이르러 補瀉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7. 經氣의 往來와 精神

『內經』에서 刺法의 眞髓는 반드시 먼저 神을 다스리는데 있다고 하였는데^⑮, 『素問·寶命全形論』에서도 “鍼有懸布天下者五... 一曰治神...”, “凡刺之眞, 必先治神.”이라 말하고 있다. 治神은 먼저 醫者가 행해야 한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 “靈守關, 上守機. 機之動, 不離其空, 空中之機, 清靜而微, 其來不可逢, 其往不可追. 知機之道者, 不可掛以髮, 不知機道, 叩之不發. 知其往來, 要與之期, 靈之闔乎, 妙哉, 工獨有之.”라 하였는데 여기서 上工은 清靜하면서 미세한 機微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神의 清靜하기 때문이다. 『靈樞·本神』에서도 “是故用鍼者, 察觀病人之態, 以知精神魂魄之存亡得失之意.”라 하여 침을 놓는 사람이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精神魂魄이 있고 없고, 얻고 잃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氣至의 경우에도 神의 영향을 받아야 기가 잘 온다고 하였다^⑯. 『靈樞·行鍼』에서 “或神動而氣先鍼行, 或氣與鍼相逢, 或鍼已出, 氣獨行, 或數刺乃知, 或發鍼而氣逆, 或數刺病益劇.”라 하여 神이 먼저 움직이면 기가 그것을 따라가 침을 놓기도 전에 먼저 운행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刺鍼하기 전에 神이 먼저 動하여 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반적으로 氣가 神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治神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靈樞·終始』에서 “(醫者가) 깊고 조용한 곳에 거처하여 神이 오고가는 것을 점치며, 문을 모두 닫고서 魂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뜻과 神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精氣의 도움이니^⑰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아서 그 精을 거두어들이면 반드시 神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며, 의지를 침에다 두어 얇게 留鍼하고 미세하게 기운을 띄우다가 그 神이 옮겨가서 氣가 이르면 이내 그친다. 남자는 안으로 견고하게 막아 기운이 나오지 못하게 하며 여자는 밖에 대하여 삼가 지켜 邪氣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得氣라고 한다. (深居靜處, 占神往來, 閉戶塞牖, 魂魄不散, 專意一神, 精氣之分, 毋聞人聲, 以收其精, 必一其神, 令志在鍼, 淺而留之, 微而浮之, 以移其神, 氣至乃休. 男內女外, 堅拒勿出, 謹守勿內, 是謂得氣.)”라 하였다. 여기서 神을 옮긴다는

⑮ 李鼎은 『鍼灸學釋難』(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6: 39.)에서 『靈樞·終始』의 “必一其神, 令志在鍼”과 “以移其神, 氣至乃休”의 조문을 들어 의사 스스로 자침할 때 정신을 침에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환자의 神과 氣도 조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⑯ “精氣之分”을 “精氣不分”으로 보아 精氣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것은 醫者가 의념을 통하여 기를 운행하거나 또는 자신의 神을 환자에게 직접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經氣의 往來는 醫者 또는 환자의 神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치료 효과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일반적으로 經氣는 經絡을 순행하는 正氣로 보고 있으며 『內經』에서는 眞氣라고 표현하였으나 그 바탕은 주로 穀氣 또는 營氣이고 그 밖에 原氣, 宗氣, 衛氣 등이 관련되어 있다. 한편 正氣만이 經絡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邪氣도 往來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邪氣, 濁氣, 清氣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內經』에서 이러한 經氣의 往來는 병리적으로 邪氣가 들어와 經氣를 동요시켜 비정상적으로 파도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며, 반면에 정상적으로 經氣가 往來하여 비슷한 파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眞氣 또는 邪氣가 이르는 것을 氣至라고 하는데 의사는 반드시 이러한 氣至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刺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가 이르는 짧은 순간에 刺鍼을 해야 하며 또한 기가 머무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서 淺深을 조절하여 치료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이 氣至에 적중하였을 때 陰陽의 조화를 이루어 가장 적합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氣至는 또한 得氣의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補瀉法의 경우에 이러한 經氣의 往來를 바탕으로 迎隨補瀉를 시행하게 되는데 迎隨補瀉는 후대에 성행하였던 鍼向 중심의 手技法이 아니라 바로 經氣 往來의 虛實을 바탕으로 그 세력에 맞추어 陰陽을 조절해 나가는 補瀉法의 대강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迎隨補瀉法에 의하여 員方補瀉의 개념이 발전하였다.

또한 『內經』에서는 이상의 氣의 往來 과정을 인식하고 보사하는 데에 神의 조절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미세한 기의 흐름을 감지하고 補瀉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神이 淸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刺鍼 이후 氣至와 得氣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調神을 통한 導氣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1. 張烜理. 經絡學說의形成原委及功能. 山西中醫學院學報. 2006 ; 7(5) : 2-4.
2. 姜棟允, 趙學俊. 經脈과 絡脈의 循行 模式과 營衛氣의 運行 特徵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 19(2) : 30-45.
3. 金容辰. 『黃帝內經』의 經絡學說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 12(1) : 4-20.
4. 張介賓. 類經. 서울 : 大星文化社. 1982 : 266.
5. 王鴻謨. 經氣及其運行規律探討. 中國鍼灸. 2004 ; 25(5) : 323-6.

6. 李家源, 安炳周. 大漢韓辭典. 서울 : 教學社. 1998 : 1876, 2937, 3267, 3537.
7. 楊上善著 李克光, 鄭孝昌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5 : 785.
8.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 法仁文化社. 2005 : 314, 975.
9. 唐衛華. 試論神與鍼灸臨床治療的關係. 鍼灸臨床雜誌. 2005 ; 21(12) : 37-9.
10. 王小平. 『內經』鍼灸調經原理初探.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5 ; 29(2) : 105-6.
11. 金慶鎬, 尹鍾和. 手技補瀉法 中 分層區分補瀉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4 ; 11(1) : 373-90.
12. 張成之. 氣至而有效淺識. 中醫藥研究. 2002 ; 18(4) : 1-2.
13. 洪元植, 嚴東明. 五俞穴을 이용한 四時刺法. 大韓鍼灸學會誌. 2000 ; 17(4) : 18-27.
14. 邢玉瑞, 張喜德, 苗彥霞. 中醫順勢思維研究. 陝西中醫學院學報. 2001 ; 24(1) : 4-6.
15. 孫寬永, 李惠貞, 崔容泰. 迎隨補瀉에 관한 文獻的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2 ; 9(1) : 31-40.
16. 林鎮錫. 迎隨補瀉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 ; 12(2) : 281-92.
17. 李振海. “迎隨”本義初探. 遼寧中醫雜誌. 2006 ; 33(7) : 877-8.
18. 李鼎. 鍼灸學釋難. 上海 :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6 : 39.
19. 王家鷺. 調氣與治神. 傷害中醫藥雜誌. 2003 ; 37(11) : 42-3.